

## 오랜 기술 노하우 통해 발전 거듭 '고품질 저가격'으로 고객만족 꾀해



심재만

(주)동덕프라스틱 대표이사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화학산업은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플라스틱산업은 WTO로 상징되는 세계경제체제 하에서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재질적 장점들을 기반으로 기술개발과 연구활동을 통해 기존산업은 물론 첨단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의 장점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합성수지 원료가 폭등과 공급부족으로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작년에는 21개월 이상 60%를 밀도는 평균가동율과 환율급락으로 오히려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욱 힘든 경영환경에 처했다.

더욱이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시행과 정부의 단체수의 계약제도 폐지방침은 플라스틱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



▲ (주)동덕프라스틱 시트 제품



◀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주)동덕프라스틱 전경

켰다.

여전히 중소 플라스틱 업계는 잦은 원료가격 폭등, 폐기물 부담금 부과,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산업기반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 경제의 초석인 산업만큼 위기를 극복하고자 재도약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저마다 각기 다른 독특한 경영과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제품 개발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창기 플라스틱 생산업체답게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다양한 품종으로 여러 산업을 걸쳐 제품을 공급하며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주)동덕프라스틱(대표이사

심재만)을 찾았다.

(주)동덕프라스틱은 1978년 설립 이래 27년간 플라스틱 시트 및 Plate(판재)를 생산해 온 플라스틱 원단 전문업체이다.

고객과 더불어 성장해 온 동덕프라스틱은 플라스틱 원단 전문업체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초창기 업체답게 제품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1978년 남들이 아직 도전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단 생산업체인 동덕을 설립하게 된 심재만 사장은 플라

스틱 업계 초기 멤버로서 동종 업계에서도 유명인사다.

심 사장은 27년 넘게 한 길만 걸어온 만큼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는 특별한 홍보 없이도 제품 의뢰가 들어올 정도로 동덕의 오랜 역사와 노하우는 단연 돋보인다.

‘고품질 저가격’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는 동덕은 연간 4천톤의 생산량으로 2004년 매출액 70여억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현재 경기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 위치한 동덕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울 사무소를 두고 20여명의 직원들이

## DONGDEOK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꾀하고 있다.

동덕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PS, ABS, PP 시트 이외에도 기능성시트인 정전기 방지의 대전방지시트, 반도체 트레이용 도전성 시트, 생분해성 시트와 기타특수시트인 스피커 그릴용 시트, 난연성 시트 등이 있다.

PS 시트는 열가소성 수지로 가볍고, 무미, 무취, 무독성, 우수한 절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견고한 것이 특징으로 내열성과 함께 무광택, 고광택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여 가전

제품 부품 및 Housing, 식품 포장, TAPE 등 범용 플라스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동덕은 PS 시트를 이용하여 식품, 전자, 부품용 용기에 사용되는 용기(Tray)용 시트와 전자기기(액정) 등의 보호용 간지 및 Beads, Crystal 무늬 등의 엠보싱 판매 Nail Buffer용을 생산하고 있다.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의 3중 단량체로부터 만들어지는 열가소성 수지인 ABS 시트는 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산업자재,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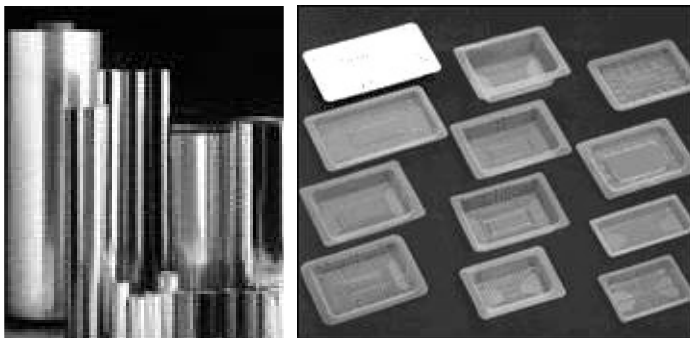
생활용품 등의 분야에서 두루 사용하는데 동덕은 식품, 전자, 부품용 용기에 사용되는 시트와 광고용 판재, 기타 고광택, 무광택 시트를 제공하고 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트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동덕은 계면활성제 타입의 대전방지제는 물론 영구대전방지제, 도전성 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전기 방지용 시트를 생산하고 있다.

설립 초기 이종의 시트지를 합치하여 고기능시트를 생산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을 비롯 고부가 가치의 시트 생산기술과 다양한 시트를 개발 보급하며 압출기계의 발전에도 일조했다.

특히 Projection TV 등 AV 기기의 전면 스피커를 덮고 있는 스피커 커버용 시트를 국산화하는데 성공, 특수 시트분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스피커 그릴용 시트는 고부



▲ (주)동덕플라스틱 시트를 이용한 플라스틱용기

가가치 제품인 만큼 처음 일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동덕이 최초 개발하면서 국내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불에 잘 타지 않는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여 PS 및 ABS 시트용 난연 시트를 고객의 요구에 의해 생산하고 있으며 일반 ABS 시트보다 내후성이 높은 ASA를 이용한 내후성 시트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동덕은 다양한 제품 생산을 통해 국내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제품관리 어려움 및 납기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

심태영 이사는 “다품종이라 납기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적정 마진으로 제품 단가를 맞추며 좋은 품질로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래전부터 2500평의 부지를 마련, 효율적인 제품관리를 위해 사업장을 이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품 특성에 따라 분량이 각각 틀려 일괄적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덕은 공장이전을 통해 효율적인



▲ (주)동덕프라스틱 물품창고 내부

관리와 품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150여개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동덕은 해외영업을 준비중에 있다.

그동안 간접수출이 많았던 동덕은 ‘동덕’의 브랜드로 해외로 진출, 제2의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분해성 및 생분괴성 시트 분야를 개발하여 상용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심 이사는 “상품성과 기능성, 적절한 단가 측정을 융합하여 27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생분해성 시트를 꾸준히 연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종업계로부터 탄탄한 기업이라는 인식아래 신규오더 창출이 많은 동덕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직하게 믿음과 신용으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는 동덕프라스틱. 오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에 바이어는 동덕을 27년간 한결같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주)동덕프라스틱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